

<2020- 7 월호 인도자 용 소그룹 성경공부>

By 류재덕 목사

1 주

역대기상 1:1-4, 27-28

- 제목 사람이 역사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 찬송가 528 장 (통 318)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75 장 (통 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복음성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

1. 여는 질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는 중요합니다. 어려움, 고난 속에서 위로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떤 경우에는 인생의 진리를 찾기 위해, 곧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바른 길을 찾기 위해. 어떤 경우이든, <나와의 특별한 계기>는 아주 중요하지요. 서로 속사정을 알게 되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 본문 이해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기에 쓴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쓴다면 무엇을 기록하려 할까요? 아마 사건부터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역대기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27-28 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1 절).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어지다가, 27-28 절에서 “아브람, 곧 아브라함”까지 잇고는 한 호흡 쉽니다.

역대기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자신들의 역사를 새로이 쓰면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일까요? 역대기는 역사의 중심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 합니다. 사람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의 기록이 그들 역사의 핵심임을 선언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희망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패망, 그리고 포로 당함으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패했으니 그들의 신이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훨씬 월등해 보이는 바벨론 문명에 기가 죽어 이스라엘 사람이길 포기한 사람도 늘어 날 위기였을 것이지요. 이제 누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까? 어디에 관심이 가야 할까요? 역대기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사람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변상황이 다 바뀌어도 사람만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게 되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구체적인 예가 되지요. 다니엘 1 장은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개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임을 지켜내는 지 보여줍니다. 가장 간단한 것, 먹는 것으로부터 지켜나갑니다. 바벨론 왕궁이 훨씬 근사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3. 말씀 속으로

- 1) 역대기는 첫 구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1 절)
- 2)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시나요?

4. 삶 속으로

- 1) 사람이 역사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 2)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가요?

교회를 단순히 내 신앙생활을 위한, 내 필요를 채우는 곳이라 생각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모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 1)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구원의 삶을 살도록,
- 2) 그 구원의 삶에 모든 민족이 참여하도록 전도와 선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런 큰 시야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까?

5. 암송구절: 고린도후서 5: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 자녀와의 나눔

부모님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2 주

역대기상 13:8-12

- 제목 몰랐다면... 이제 알아내면 됩니다.
- 찬송 3 곡 273 장 (통 331) “나 주를 멀리 떠났다”
 453 장 (통 50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복음성가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

1. 여는 질문

실수나 실패를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실수나 실패는 우리 인생의 바닥경험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지만, 위가와 어려움이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여주게 하지요. 어떤 대처... 사람마다 다르지만,

위기에서 나의 나뉘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 본문 이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자, 다윗은 첫번째로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자마자, 다윗의 마음 속에 두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 아비나답의 집에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깁니다. 그런데, 소들이 어느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뛰자 궤가 땅에 떨어지려 했고,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그 궤를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웃사가 죽게 됩니다.

사고가 생기고 이 일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가는 사무엘하 6 장과 달리, 잠시 동안 일이 중단된 채로 남겨두고, 역대기 14 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빈 공간을의 침묵, 곧 공백으로 남겨둔 것이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일이 틀어지면, 잠시 멈추는 공백의 시간,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는 성실함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겐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깨달음과 길을 항상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인도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상 15 장 2 절은 다윗이 그 이유를 찾아 내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 제대로 된 사람이지요.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좀더 관심있는 인도자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9 장에서 야곱이 12 아들들을 놓고 유언을 하는데, 레위과 시몬을 향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흑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창세기 34 장에 등장하는 <디나의 폭행당함과 세겜 몰살 사건>에 나옵니다. 특히 34 장 25 절.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끌고다니는 여유로는 안된다. 반드시 어깨에 메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깊은신 하나님의 뜻!

3. 말씀 속으로

1)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급하게 붙들었던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인가요?

(10 절)

2) 나중에 다윗은 찾아냅니다. 어떤 실수를 하게 된 것인지 (역대기상 15:13).

다윗은 왜 그렇게 간단한 사실을 미리 알아보지 않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가요?

다윗에겐 옮길 법궤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법궤가 무엇이며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지, 그 맥락과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폭과 깊이가 달려지도록 인도하시지요.

4. 삶 속으로

1) 실수를 하고 나서,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있나요?

2) 신앙생활도 진척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충 안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지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실천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하려다 보니,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고 율법의 빠져 허우적 거리게 되지요. 에너지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아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법궤를 옮기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충만하니, 왕국을 세워나가는 생명력이 충만했을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네요.

5. 암송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6:33).

6. 자녀와의 나눔

실수나 실패를 하고나서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때 배운 것이 있으면 무
엇이었는지 말해 볼 수 있나요?

3 주

역대기상 21:15-20

- 제목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찬송 3 곡 251 장 (통 137)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570 장 (통 453)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복음성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1. 여는 질문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하고 나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2. 본문 이해

사탄은 잘 되고 있는 다윗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부추켰고,
다윗은 그 부추킴에 넘어갑니다.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병력을 숫자로 손에 쥐려했던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재앙의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탄의 계략은 성공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화위복!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던 것일까요?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17 절).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다윗의 신실한 요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대신 발돋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고백은 항상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해피엔딩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으로 얼어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기를 기다리실 것이지요. 다윗은 완전히 코너에 몰립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그가 백성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지요. 전쟁과 왕국을 지키기 위한 도구 또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죽어줄 마음으로 지켜야 할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지요. 신앙의 진보는 가슴을 찡하게 움직여주지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를 발동시켜 쓰시는 분!

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천사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허락하시고 나서 칠만명이 죽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면이 있으시다니...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나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화를 내시는 것일까? 좀 지나친 것은 아니신가? 목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전쟁의 도구, 또는 다윗이 부릴 재산 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신 것이지요.

2) 사단이 부추켜서 저지른 악이지만,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죄값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망해도 좋다. 그 댓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 백성들이 누구인지 비로서 눈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백성 사랑, 아둘람 동굴에 모였을 때 느꼈던 그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다윗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댕큐!”

4. 삶 속으로

- 1) 내가 실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인가요? 댓가까지 치를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 2) 사단의 부추킴이라고 알았다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단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고 분명해질 것 같은가요? 왜지요?

사무엘하 24:1 에는 똑 같은 사건이 언급되는데, 다윗을 부추킨 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 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의 초심, 곧 아둘람 동굴 때의 초심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 역대기상 21 장은 사탄이 시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다윗이 초심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것을 시기했을 것이고,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서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부추켰다고 하면, 상대가 사단이니 결단이 약간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적에게 쉽게 넘어갈 순 없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테스트한 시험으로 봐도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다시 점검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5. 암송구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니라” (야고보서 1:14-15).

6. 자녀와의 나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잘못을 숨기고 있으면 양심이 불편합니다.
인정하고 나서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4 주

역대기하 5:11-14

- 제목 하나님의 임재가 건축을 완성합니다.
- 찬송 3 곡 84 장 (통 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368 장 (통 486) “주 예수여 은혜를”
 복음성가 “여기에 모인 우리”

1. 여는 질문

내가 한 계획하고 진행한 것보다 더 일이 잘된 경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나요?

2. 본문 이해

솔로몬의 성전건축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성전건축을 그토록 사모했던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놓은 성전기구들을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마침내 다윗성에
보관중이던 여호와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의식을,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 거행하게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고 지성소 안 그룹들 날개 아래에 놓았으며, 나팔을 불며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퍼집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성전건축은 온전히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곧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워졌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지요.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하나님의 영광, 곧 따뜻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빛을 잃었던 마음들이 다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성된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성전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임하는 곳이 성전, 곧 거룩한 전이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완성은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왔다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간절함이 중요하게 됩니다.

3.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은 성전을 당신의 무엇으로 채우셨나요? (14 절)
- 2)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것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영광의 구름으로 그곳을 채워주십니다. 천상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묵상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갈 때에 비로소 신앙의 참된 동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4. 삶 속으로

- 1)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지요. 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가요?
- 2)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땠나요?

신앙은 윤리가 아니고 도덕도 아니지요. 신앙은 우리를 영적 세계로 발돋움하게 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삼층천으로 끌려 올라가지요.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 열린 하늘을 보게 되지요. 그러자, 돌을 던지는 자들의 위협과 돌에 맞는 육신의 고통이 더 이상 그를 움켜쥐지 못합니다. 얼굴 빛이 바뀌게 되지요. 바울도 말하지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7).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지요. 윤리 도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 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느끼고 감당하라고 하시는지, 그 몸짓, 말씨, 마음씨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알팍하고 천박하게 해 온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4),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5. 암송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6.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